coupang newsroom

JTBC 6월 27일자 보도에 대해 말씀드립니다

2022. 6. 29.

- 전 세계적 현상인 코로나 감염을 특정 기업의 책임으로 몰 수는 없습니다. 지난 2년간 국내 인구의 약 1/3에 해당하는 1,830만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, JTBC와 대책위는 수십 명의 근로자가 양성 반응을 보인 2년 전 사건과 관련해 사실을 왜곡하고 근거 없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.
- 쿠팡풀필먼트서비스(이하 '쿠팡')는 대유행 초기부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방역당국이 지정한 모든 지침을 충족하였으며, 오히려 방역당국의 지침보다 강화된 코로나19 예방 정책을 선제적으로 시행하는 등 적극적인 방역 관리를 실천하였습니다.
- 당시 부천 신선물류센터 역시 코로나 발생 직후 방역당국에 방역팀 파견을 요청하는 등 방역당국과의 긴밀한 협의 하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. 대책위는 악의적인 공격의 일환으로 쿠팡과 방역당국 사이의 소통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채 사실관계를 추정하여 왜곡하고 있으나, 이는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. 향후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를 적극 소명할 예정입니다.

쿠팡 부천 신선물류센터와 관련해 사실을 말씀드립니다.

취재 문의 media@coupang.com